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광주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도시재생 추진



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광주 북구는 11일 중흥동에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북구는 전남대와 광주역 주변에 2023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80여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청년일자리·주민공동체·스마트시티 총 3개팀 5명으로 구성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기업, 청년단체 등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사회

특히, 주민공모 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운영 등 주민주도 사업 유지·관리와 청년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사진)은 “이번에 개소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주민,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현장 지원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봉채영 기자

완도, 전용컨테이너로 전복 수출길 열어

국내 첫 활전복 전용 컨테이너 제작
판로 확대 박차... 대량 수출 ‘청신호’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제작한 활전복 전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완도산 활전복 1200kg를 대만으로 수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북미 지역 수출은 대부분 항공 수출에 의존하여 항공 물류비 부담과 수출량이 한정됐었다. 이에 완도군(3억 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2억 2500만원)의 지원과 한국전복수출협회 자부담(2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5000만 원으로 활전복 전용 활컨테이너 5대(40피트 형)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

활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길이 열림에 따라 완도산 활전복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완도군이 명실상부 전복 수출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한국전복수출협회는 활전복 수출을 위해서 해외 바이어를 여러 차례 초청하여 활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출했을 시 전복의 신선도와 안정성 확보 등을 알리는데 힘썼다. 또한 수협중앙회 대만수출지원센터의 ‘대만 전복 유통 현황’ 등 정보 교류를 통해 활전복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t106@

경기도, 구급차 출동 “47초당 1회꼴”

지난해 67만6764건 출동... 4.3% ↑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47초당 1번꼴로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며 시기적으로는 7월이, 연령대로는 50대가, 출동 이유는 고혈압 환자 수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기도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구급출동 건수는 67만6764건, 이송건수는 42만4774건, 이송인원 43만 3772명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2만 7744건(4.3%), 이송건수는 1만6029건(3.9%), 이송인원은 1만5257명(3.6%)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구급출동건수인 41만5,970건과 비교하면 62.7%가 증가한 것으로 도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구급현황을 하루 기준으로 보면 매일 1854건 출동해 1188명을 이송한 것으로 이는 47초 마다 1회 출동해 73초 마다 1명씩 이송한 것이다. /경기=김승일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6 | 해질 / 18:07

2월 12일(화) 음력 : 1월 8일

수도권 날씨 -4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9/3, 동두천 -7/5, 가평 -7/4, 파주 -9/3, 서울 -4/4, 양평 -5/4, 인천 -3/3, 수원 -3/3, 용인 -3/3, 평택 -6/4

백령도 -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완성차 공장의 주주로 모십니다”

광주시민 주주 참여 방안 추진

광주시-현대차, 투자자 모집 등 협의
합작법인 자본 7000억중 1680억 모집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합작법인에 광주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 오는 14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박병규 일자리 특보, 손경중 전라산업국장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실무협의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수익 창출 방안 등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 등을 마련한 방침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작법인 주식의 일부를 시민 주주 공모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본금 확보 방안으로 기존의 대주주와 지역기업 참여에 이어 시민의 호응을 끌어내려면 시민 주주 공모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800억원을 광주시 등 자기자본으로 충당한다.

광주시가 590억원(21%), 현대차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530억원(19%)을 부담하고 나머지 1680억원은 투자자를 모집한다.

시와 현대차는 애초 지역상공인과 지역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

여기에 시민과 노동계도 참여를 하도록 해 초기에 자기자본금 모집을 달성하고, 이사회를 노사민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심사시킴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합작법인의 자기자본금 외 나머지 자

금 42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만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민의 호응을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시민 주주 공모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현대차와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통해 안정적 투자자 모집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부산시, 311억으로 장애인 일자리 4109개 만든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발표
재정 지원 등 세부 사업 18개 마련

부산시가 올해 31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일자리 4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는 11일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한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해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초단체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비, 학교 급식 도우미, 어르신 안마 서비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업

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1289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장애인 청년인턴 및 현장 매니저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 친화 기업을 찾아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4%)을 넘어 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자문단도 운영한다.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맺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게임물 모니터링 단원 절반인 1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정보망’도 구축한다.

이밖에 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시범사업,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사업, 장애인 생산제품 전시회 등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부 추진사업 18개를 마련하고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 3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 4109개를 마련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오감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로 매력발산 ‘뽐뽐’

대표 관광지 124선, 30가지 요리 소개

전라남도가 남도 대표 관광지 124선을 선정해 ‘오감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오감만족 전라남도’ 그림지도는 기존의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관광명소를 아가자기한 그림으로 표시해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여수 밤바다, 순천만 국가정원, 보성 녹차밭과 같은 잘 알려진 관광지부터 완도 생일도, 고흥 썩섬 등 가고 싶은 섬, 문화인으로 만들어주는 영암 하정용미술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등 각종 문화시설까지 모두 그림으로 색다르게 구성했다.

이밖에도 혼자서도 든든하게 즐길 수



오감만족 그림지도.

있는 단품요리와 푸짐한 전라남도의 대표 음식을 수록했다. 특히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한 낙지전골, 우렁쌈밥정식, 흑돼지석쇠구이 등 30가지 단품요리와 식당 정보를 담아 1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전라남도 관광과, 전남지역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해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다. 관광홍보물 신청은 전라남도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